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남소*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7. 1. 15(일) ~ 2. 5(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49th St, MANITOVA 정류장에 위치하고 있다. 모든 부지가 평지이며 건물들 간의 거리가 가까워 이동이 편하다. 순천향대학과 비교하여 규모는 생각보다 아주 작은 편이었다. 수업은 주로 A빌딩에서 들었고, 요일에 따라 도서관이나 테크놀로지 빌딩을 이용하였다. 학교 내부는 우리나라의 대학과 비슷한 편이고 첫날 담임선생님께서 학교 투어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모든 빌딩을 둘러볼 수 있었다. 점심은 보통 A빌딩의 카페테리아에서 홈스테이 호스트가 싸준 것을 먹었다. A빌딩의 카페테리아에서 햄버거나 피자, 샌드위치 등을 사먹을 수 있었고, student union 빌딩에서도 스시나 롤과 같은 음식을 사먹을 수 있었다.
수업	입국 첫날 학교 소강당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그때 각자에게 바인더를 나누어준다. 캐나다의 문화나 역사, 지리, 이메일 작성법 등 다양한 내용을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수업이 지루할 때도 더러 있었다. 학교에서 필수교양으로 듣는 영어회화와 비슷하게 느껴졌고, 수업 중에 보통 파트너와 대화하는 시간이 많다. 대화 후에는 담임선생님께서 각 그룹에게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묻는다. 대화뿐만 아니라 3명씩 그룹이 되어 밴쿠버의 관광포스터를 만들거나 게임 및 롤플레이를 하기도 했다. 어떤 주제에 대해 그룹별로 토론하고 앞에 나가 발표를 하거나 칠판에 적고 들어갈 때도 있었고, 한 번은 학교 학생들을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진 적도 있었다. 담임선생님이었던 Tanya는 착하고 좋은 분이셨다. 보통 이틀에 한번 꼴로 무조건 숙제가 있다. 어렵거나 오래 걸리는 편은 아니고, 홈스테이 호스트와의 인터뷰 혹은 야외 활동 프로그램 후 프린트에 적힌 질문에 대한 답변 작성 혹은 journal 공책에 어떤 주제에 대한 의견을 10줄 이상 작성하기와 같은 것들이었다. 밴쿠버에 파견된 우리 학교 학생들은 나를 포함하여 총 15명이었고, 분반은 되지 않았다. 수업은 우리 학교 학생들끼리만 진행되고 수업 자료

	및 공책은 학교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별도로 챙겨간 공책은 사용할 일이 없었다.
Activity	밴쿠버 박물관, 학교에서 단체로 간 곳으로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 내부는 캐나다의 역사에 대해 전시되어있는데, 지루하지 않고 아주 예쁘게 잘 꾸며져 있다. 독특하고 흥미로웠다. 밴쿠버 아쿠아리움, 학교에서 단체로 간 곳으로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 가오리를 직접 만져볼 수 있고 추가 비용 없이 4D를 관람할 수 있다. 야외와 내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래 머물만큼 규모가 큰 편은 아니었다. 스텐리 파크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스텐리 파크는 크고 예쁜 공원이데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다. 바로 앞에 요트 선착장이 있다. 잉글리쉬 베이와 인접하여 걸어서 잉글리쉬 베이 비치에 갈 수 있다. 걸어가기엔 다소 먼 거리일 수 있지만 잉글리쉬 베이 비치에서 더 내려가다보면 비교적 작은 선셋 비치가 나온다. 개인적으로 제일 예쁘고 좋았던 장소이다. 날씨가 좋으면 일몰 때 아주 아름다운 곳이다. 그랜빌 아일랜드, 학교에서 단체로 간 곳으로 따로 입장료가 있지 않다. 퍼블릭 마켓에서 다양한 과일 및 야채와 같은 신선한 재료들을 볼 수 있다. 또한 초콜릿이나 마카롱과 같은 디저트 카페, 각종 찻잎을 파는 가게 등등 다양한 상점들이 모여 있고 내부에 푸드 코트도 마련되어 있다. 캐나다에서 결제를 하면 따로 세금이 붙는데, 이곳에선 세금이 붙지 않는다. 컬링, 학교에서 단체로 간 곳으로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 처음 배울 때 다소 힘들다. 컬링장에 가보면 대부분 할아버지들이 즐기는 스포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생각보다 재밌지는 않았다. 컬링장에서 조금 걸어가면 퀸 엘리자베스 공원이 나온다. 아주 크고 한적한 공원이다. 스노우슈잉, 학교에서 단체로 간 곳으로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학교에서 스노우슈잉을 했던 산까지는 버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부츠를 신고 가는 것이 좋다. 양말도 두겹게. 길에 눈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걸을 때마다 신발 뒤축으로 눈이 들어온다. 장갑은 무조건 챙겨가야 하고, 모자가 달린 따뜻한 외투를 챙겨 입고 가면 좋다. 등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고 가이드가 길을 개척해나가는데 위험해보이는 길도 있고 급경사일 때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가이드를 따라 올라가면 예쁜 풍경을 볼 수 있다. 내려오면 따뜻한 차를 준다. 랑가라 학생들과 따로 인사 및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준다. 순천향대에 1년간 다녔던 학생도 있었고, 올 2월에 순천향대에 오는 학생도 있었다. 여러 친구들을 만나 SNS 친구를 맺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때 만난 친구들과 따로 연락을 하여 다운타운에서 함께 놀기도 하였다. 그로스 마운틴, 입장료가 40달러가 넘는 비싼 곳이었다. 스키를 타고 싶으면 입장료가 더 올라간다. 스노우보드나 스키를 탈 게 아니라면 겨울에는 딱히 올라가서 할 게 없다. 스케이트를 타거나 썰매를 탈 수 있는 곳도

	마련되어 있지만 규모가 아주 작다. 썰매는 5달러, 영수증이 있으면 반납했다가 나중에 다시 탈 수도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먹을 것을 챙겨 가면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딱히 액티비티를 할 게 아니라면 그냥 내려와서 음식점을 가는 것을 추천. 야경을 꼭 보고 내려가는 것을 추천한다. 식당 및 기념품점 뒤쪽 테라스로 가면 시내가 내려다보이는데, 곤돌라를 타고 내려갈 때 더 예쁜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케필라노, 마찬가지로 입장료가 40달러가 넘는 곳이다. 그로스 마운틴 보다는 할 게 많지만 오래 둘러볼 정도는 아니다. 자연경관이 아주 예쁜 고스로 신비한 분위기이다. 서스펜션 브릿지나 클리프워크 등 자연 속에 길을 마련해놓았다. 5시까지밖에 개방하지 않았는데, 어두워진 후 전구에 불이 들어온 것을 봤더라면 예뻐할 것 같다. 하버 센터, 전망대가 있는 곳으로 밴쿠버 다운타운을 전체적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다. 야외가 아니라 실내에서만 야경을 구경할 수 있다. 하버 센터는 다운타운 어디에서나 보이며 보라색의 은은한 빛을 뿜어 외관상으로도 예쁜 곳이다. 개인적으로 야외 전망대가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캐나다 플레이스, 플라이 오버를 체험할 수 있다. 3D 영상에 의자가 움직이며 영상에 나오는 장소들을 날아다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놀이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거나 무서운 편은 아니다.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한 번쯤 가볼만한 곳이다. 시기별로 상영하는 테마가 다르다. 게스타운 근처에 큰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중국과 우리나라의 설날이 같기 때문에 이때의 테마는 중국의 춘절을 기념하여 중국을 여행하는 영상과 캐나다를 여행하는 영상이었다. 게스타운에 위치해 있고, 건물이 특이하여 눈에 잘 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1월 중순에 밴쿠버에 도착했을 때는 우기라서 일주일 내내 비가 내렸다. 2주차부터는 날이 개어 계속 날씨가 좋았다. 밴쿠버의 1월은 한국보다 덜 춥다. 두꺼운 야상은 입고 다니지 않았다. 3주차부터는 기온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귀국 바로 전날 폭설이 내려 버스와 스카이 트레인이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다. 그 후로도 계속 눈이 내리고 있는 것 같다.
안전	안전한 편이다. 3주 동안 무탈했다. 그래도 되도록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삼가는 게 좋다. 게스타운 및 다운타운 쪽에 홈리스들이 아주 많다. 길에 누워 있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도 하니 쳐다보지 말고 무시하는 것이 좋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o) 외부 숙소() 기타() 밴쿠버는 대부분이 주택가에 복층 구조이다. 1층엔 부엌과 거실이 있고, 침실은 모두 2층에 있다. 우리 집엔 일본인 홈스테이 학생이 있었는데, 내 옆방에 있었고 화장실은 같이 썼다. 보통 가정에서 온수 탱크를 쓰기 때문에 샤워는 10분 이내로 할 것을 권장한다. 그 외에 보일러 조절이나 화장실 사용 후 청소, 나갈 때 이부자리 정돈, 문단속 등과 같은 규칙만 잘 지키면 된다. 우리 집은 67세 할머니 한 분만 살고 계셨는데, 아침에 등교 할 때는 보통 주무시고 계셔서 전날 밤에 아침과 점심을 미리 챙겨놓으셨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면 정중하게 말씀드리면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집 안에서 신을 슬리퍼를 꼭 챙겨가는 것이 좋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o) 외부식당 (o) 기타() 아침과 점심은 홈스테이 맘이 챙겨주는 음식들로 해결했고, 저녁은 보통 시내에 나가서 친구들과 사먹었다. 세금에 팁까지 생각하면 한 끼마다 돈이 많이 든다. 돈을 절약하고 싶다면 홈스테이 패밀리와 집에서 저녁을 먹는 것이 좋다. 올드 스파게티 팩토리, 타코피노, 사무라이 스시, 스테포, 바나나 리프, Santouka 라멘, 파이브가이즈, A&W, 보스톤피자 등에 방문했다.
교통	익숙해지면 교통이 편리하다. 오리엔테이션 때 맨슬리 교통카드로 Compass 카드를 주기 때문에 교통비는 따로 지출할 필요가 없었다. 집마다 학교까지 소요 시간과 교통 이용수단이 다르다. 나는 버스만 이용했는데, 중간에 환승을 해야 했다. 소요시간은 약 20분. 다른 친구들은 40분씩 걸리는 친구도 있었고 스카이 트레인을 이용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 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및 여행자보험	약 1,20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개인 경비	약 450,000	출국 전 환전해간 금액
기념품	약 300,000	밴쿠버에서 인출한 금액
합계	약 2,00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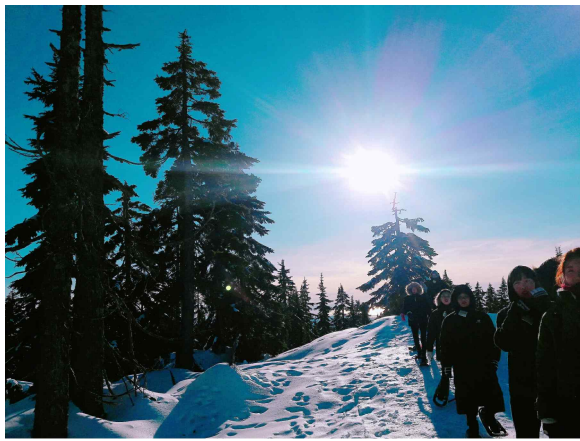
겨울에 가는 것이라면 슬리퍼랑 장갑은 꼭 챙겨가는 것이 좋다. 캐나다는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주 많다. 학교 안에만 있어도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푸틴 외에 로컬 푸드가 딱히 없어 시내에 가면 아시아 음식점도 아주 많기 때문에 별도로 라면이나 밥을 챙겨오지 않아도 상관없다. 우리 집과 친구들 집에는 쌀이 있어서 가끔 밥을 해주기도 했다. 그래도 3주가 짧은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음식이 그리울 것 같다면 컵라면을 챙겨 가면 좋다. 나무젓가락도 꼭 같이 챙겨가야 한다. 우산을 꼭 챙겨가야 한다. 겨울에는 비나 눈이 많이 온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출국 전에 이런 저런 걱정이 많았다. 가서 영어로 대화를 잘 할 수 있을까, 홈스테이 집은 어떨까 하는 걱정들이었다. 같이 파견된 학생들 중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다. 다행히도 우연히 친해진 친구와 동생들과 마음이 잘 맞아 3주 내내 붙어 다녔고,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길 수 있었다. 또한 학교 선생님들과 홈스테이 패밀리도 무척 좋았다. 밴쿠버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하고 젠틸한데다 국적이 다양하여 동양인에 대한 차별도 없다. 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좋다. 많이 시도해야 실력을 늘릴 수 있다. 3주는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기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상 곳곳에서 영어를 듣다보면 리스닝 실력은 기를 수 있다. 주위에서 들리는 대화도 허투루 듣지 않는다면 좋은 공부가 될 것이다. 특히 홈스테이 패밀리와 대화를 많이 하면 좋다.

밴쿠버에 3주간 살면서 느낀 점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이었다. 차별도 없고 교통도 편리하고 집도 아늑했다. 한국인 워킹 홀리데이도 많았고, 한식 전문점도 있으니 더할 나위 없었다. 어학연수 보다는 관광에 더 초점이 맞춰진 3주였지만, 외국인 친구들도 생기고 함께 다녔던 사람들도 모두 좋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고 즐거운 경험이었다. 나는 올해 휴학을 결심한 상황이었는데 단기어학연수를 다녀온 후 그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다. 해외에 나가 더 많은 경험을 하면서 보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해외에 나가 산다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경험해보면 아주 값진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단기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을 고민에 두고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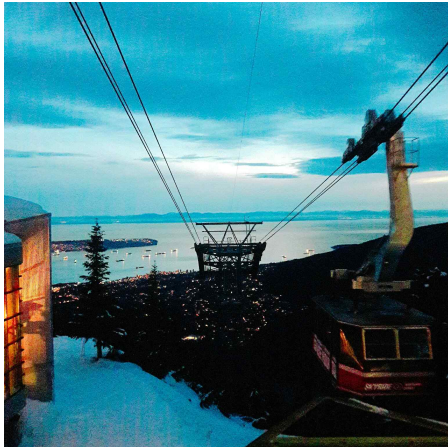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스노우 슈잉



밴쿠버 아트갤러리



그로스 마운틴



케필라노



스탠리 파크



빅토리아